

“스티로폼 상자 종이스티커를 PS 재질로”

재활용을 제고, 라벨 고급화를 통한 품질개선에 기여



국회 강성천·황영철 의원이 주최하고 자원순환연대가 주관하며 한국농어민신문과 당 협회가 후원한 '농수산물 스티로폼 상자 종이스티커 재질개선 간담회'가 지난 2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EPS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종이스티커 대신 PS(폴리스티렌) 필름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정리한 이날 종합토론에서 개선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발췌했다.

■ 전진배 농식품부 수산정책과 주무관

PS스티커를 활용해 재질구조가 개선되고 농수산물의 질이 높아지고 종이재질보다 비용부담이 크게 안 된다면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 현장에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인쇄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또 가능할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종이스티커만 문제가 되는지 PS스티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지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협약을 맺은 국가에선 의무사항이 따로 있고 별개로 스티커를 붙여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들어올 때 PS재질을 붙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박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주무관

포장재 재질 구조와 관련해선 부처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포장재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생산단계부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이 운영제도를 페트병 포장재를 한 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발제 내용에도 관심이 많고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본다. 최대한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종이스티커 재질개선 문제는 이제 고려하는 단계이고 업체에선 이것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과 비용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작단계이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 박수일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

포장재들을 따로 연구하고 있는데 EPS 문제점이 예전부터 도출됐다. 이걸 제도화쪽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의무화시켰을 때 여러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문제점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보면 EPS 분야가 상황이 열악하기도 하다.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 김기태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EPS포장이나 PS스티커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이를 이제 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문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괜찮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보방안, 마스터 플랜 등이 제시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하지 않는 곳에 대신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이냐 등의 세부적인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 홍치선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

점진적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상품에 대한 질 쪽으로 치중하면서 종이를 대체할 EPS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다. 소비자들도 농산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민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과 맞물리면 EPS 상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PS스티커 활용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EPS상자와 PS스티커를 다른 개념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업계에선 EPS상자 공급시점과 영업전략적 측면에서 PS스티커를 같이 쓰도록 검토하고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으로 정착화시켜 나간다면 시장은 넓어질 것이다.

■ 김진만 한국스티로폼재활용업협회 회장

수산물 상자는 특히 물에 젖은 상태에서 종이스티커 제거가 어려워 잉고트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 PS스티커 사용이 빠른 시일 내에 의무화돼야 한다. PS스티커 사용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비용은 아니다.

■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부회장

그동안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된다는 등 스티로폼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오존층 파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논문 등이 나오고 환경호르몬 물질건도 서양 각국에선 스티로폼에 대한 환경호르몬 연구물질을 아예 논의 대상에서 빼고 있다. 이제 외국에선 우리나라의 제품 포장에 대해 규제가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기고 EPS포장 등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EPS포장과 PS스티커 부착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 김정훈 서경대 교수(좌장)

농식품부 입장에선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좋아져서 외국수입품을 능가했다는 것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선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벨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마케팅이다. 라벨을 고급화하고 인쇄도 제대로 돼 있는 EPS상자를 활용한다면 제품 이미지가 상승하고 품질도 좋아질 것이다. 환경부에서도 EPR제도는 굉장히 훌륭한 환경부의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종이스티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업적이 퇴색할 것이다. 이를 PS스티커로 교체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